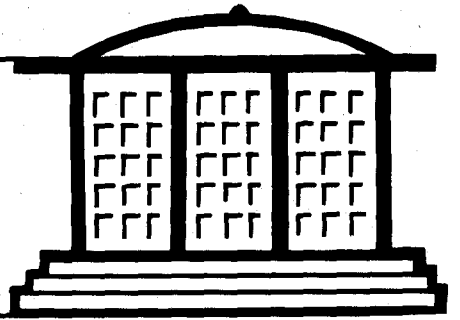


소식

기관단체



■ 종계사육현황, 종란·초생추생산계획 조사 농림수산부, 10월중 조사토록 각시도에 지시

- 종계·부화업 관리요령과 관련 -

농림수산부는 종계·부화업관리요령(고시제87-15호 87. 4. 8)과 관련해 11월10일까지 내년도 종계 사육 종란·초생추 생산계획서를 제출토록 시·군에 지시하였다.

시·군은 종계사육 및 종란생산공급계획, 초생추 생산실적 및 계획 등 보고서 서식에 의거 조사해 기일내 농림수산부에 제출해야한다.

부화장·종계장에서는 기보고된 숫자에 구애없이 86-87년도 병아리 실생산량과 88년도 종계사육과 종란 및 병아리 생산계획서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길바라며 보고내용에 대하여는 세무자료 등 타용도로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88종계수입계획을 초생추 검역시설 보유현황과 종계등록규모 및 금년도 수입실적 등을 감안해 실수요량을 조사해 가수요에 의한 과다량이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

■ 대두박 관세율 인하

정부는 10월중으로 대두박의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조정 할것으로 25일 재무부가 발표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관세율 인하작업도 업계에서 끈질기게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인하될 소지는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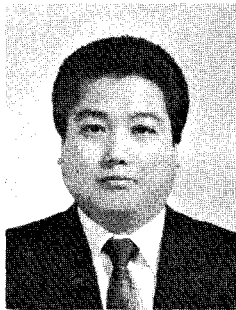
■ 국립동물검역소 직제개정

대통령령 제12234호(8. 14)에 의거 국립동물 검역소가 부산에서 서울로 소재지를 이전하게 된다.

우선 소장, 검역과장과 일부직원이 등촌동의 서울지소에서 업무를 보고 장소가 물색되는대로 내년부터는 완전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동령에 의해서 서울지소 인천지소의 관할구역이 조정되었으며 본소의 이전에 따라 부산지소장의 직급이 5급수의관에서 4급수의관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한국축산경영학회 이사회 개최



(류제창 회장)

한국축산경영학회(회장 류제창)가 지난 9월 19일 엠배서더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신회원제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 정기총회를 오는 12월12일 건국대학교에서 개최기로 결정했으며, 또한 △낙농경영 △육우경영 △양돈경영 △양계경영 △사료사업경영 △동물약품경영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산학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축산업이 공급과잉으로 빚어지고 있는 불황을 극복키 위해 각 분야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농림수산부, 부화·종계업실태 현지조사

농림수산부가 지난 9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기, 충남 등 6개도시의 86개소 부화·종계업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 결과 지난번 육계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성수기 대비 40%를 자율감축하겠다는 부화·종계업자들의 결의와는 달리 7%감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양계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부화업자의 입란은 물론 양계농가의 입추자제가 절실히를 지적, 본회에 양계관련기관이 총 참여하는 「양계산물 가격안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종계·부화업 관리전반에 걸쳐 조사한 결과 지정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석, 시·도지사로 하여금 철저한 시정을 강력히 지시했다.

또한 양계업 정비기간이 지난 7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아직 미비된 사항이 많다고 지적, 시정을 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말까지 재보완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된 종계·부화업계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부화업의 경우 ▲부화기를 허가대수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화행위는 물론 ▲미등록 종계업체에 종계판매행위 ▲초생추생산실적의 과소·과다 보고 행위 ▲초생추 계통보증서 미발급행위 ▲부화장간의 위탁 부화행위 ▲부화장에서 종란판매행위 ▲소독조시설 미비 또는 미활용 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종계업에서도 ▲종계업 등록수수보다 과다사육 행위 ▲미검정 종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종계사육 행위 ▲종계를 용도별로 구분치 않고 사육하는 행위 ▲종란 반출입대장 미비행위 ▲종란혈통보증서 미발급 행위 ▲무허가 부화장에 종란을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지적됐다.

■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살처분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농림수산부 고시 제87~46호(8.25)로 개정 고시하였다.

이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하여 보상금의 평가 방법과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닭은 뉴캐슬병, 가금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크로프라즈마병, 요네병, 닭뇌척수염 중 농림수산부 장관이 별도 언정하여 살처분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외화획득용 농축산물·기준소요량고시 및 증명서 발급기관 지정

농림수산부는 고시제87-28호(87.7.2)로 동물성 유지류, 육류, 모피 및 모류 가죽의 부산물에 대한 것은 축산시험장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고87~39호(8.31)로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도 개정 공고하였다.

■ 초지법시행규칙 개정

농림수산부령 제987호로 초지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로써 초지전용의 허가권이 시·도지사에게로 대폭 이양되었고,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초지전용의 허가절차 및 사료작물 재배지로의 사용신고 절차 등을 정하였다.

■ 민정당, 축산단체장 간담회 개최

- 9.16, 축산현안문제 토의 -



▲ 민정당, 축산단체장 간담회

지난 9월16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관계 생산자단체대표, 업체대표, 농림수산부 차관보·축산국장 및 민정당 정책위원장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체 양계현황에 대해서 본회 정태원회장이 설명하고, 최근 수입개방과 관련 현실점에서 양계산물 생산비 절감방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생산비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배합

사료가격을 인하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사료곡물 관세면제, 곡물쿼터제 폐지 및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육계불황을 감안, 닭고기통조림 수입에 있어서도 개방을 하지않거나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석 농림수산부 제2 차관보는 답변을 통해 현재 기본관세율보다 관세가 낮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농업기반과 재정형편 등에 있어 완전면제는 어려우나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곡물쿼터제 폐지에 있어서 완전철폐는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쿼터제를 운용함에 있어 수급상 차질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정부 ▲ 이병석 농림수산부 제2 차관보 ▲ 김광희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국회 ▲ 남재희 민정당 정책위원장 ▲ 金泰尔 민정당의원 ▲ 이진 민정당 정책실차장 ▲ 金泰洙 민정당 전문위원 ◇ 단체 ▲ 황영구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문 ▲ 송찬원 "회장 ▲ 김의수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전동용 대한양돈협회장 ▲ 정태원 대한양계협회장 ▲ 강성원 서울우유 협동조합장 ▲ 강희구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장 ◇ 업계 ▲ 김태신 태신목장대표 ▲ 이인혁 제일종축 사장 ▲ 권오걸 삼보목장대표 ▲ 윤희진 대월종돈장 대표. 그리고 각단체 전문 등이다.

■ 축산회관 88년 가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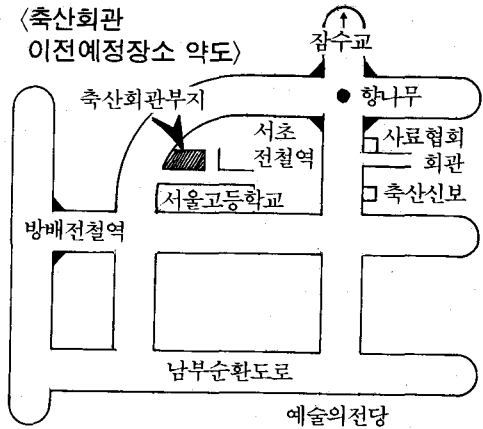
- 강남구 서초동에 부지구입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를 맡아오던 축산회관이 이전한다.

현재 본회와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낙농비우협회가 입주하고 있는 축산회관은 그동안 축산단체들의 사업량 증가와 업무의 다양화 등 시설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축산진흥기금 5억원의 보조와 자체자금 6억원(現회관 매각대금) 등 총 11억원을 들여 새로운 회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축개량협회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516-5번지에 238평의 부지를 5억2천7백만원에 구

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설계규모와 現축산회관을매각 후 내년도 8월경에 새회관을 준공할 예정인바, 새로이 마련되는 회관에는 각 축산단체 사무실과 회의 및 교육장, 전산처리실, 검정분석실, 전시장 등 지상5층지하1층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 한국사료협회 인사

한국사료협회(회장: 박찬궁)는 지난 9월5일 조직기반 확립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인사를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

- 김승기: 홍보부과장
- 김치영: 기획조사과장
- 전충봉: 하역관리과장
- 박동희: 하역관리과대리
- 송부국: 업무 1 과장(前인천하역관리과장)

■ 제51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제51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설동섭)가 지난 9월29일(화) 오후 2시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축산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환절기 가축전염병 발생예방대책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돼지가성광견병 혈청검사 실시 철저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안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